

창업가 특성이 창업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창업행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The Influence of the Characteristics of Start-ups on the Performance of Start-up Firms - Based on the Mediated Effects of Start-up Behavior -

유승옥

광주대학교 기초교양학부

Seung-Ok Yoo(soyoo@gwangju.ac.kr)

요약

최근 창업기업이 국가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등장하면서 국가 경제의 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창업행동(기회발견, 기회활용)을 주요변수로 활용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며, 창업가 특성이 창업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달성하기 위해, 창업이후 2~7년 된 기술집약적 창업기업 221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2019년 3월 4일부터 3월 25일까지 22일간 설문조사와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가 특성'은 '창업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창업행동'은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성별, 학력)"에 따라 "창업가 특성"이 "창업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성별, 학력)"에 따라 "창업행동"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창업행동"은 "창업특성"과 "경영성과"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심어 : | 창업가 특성 | 창업기업 | 창업행동 | 경영성과 | 일자리 창출 |

Abstract

Start-up companies have recently emerged as an important pillar of the national economy, becoming the core of expanding new growth engines and creating jobs for the national economy. Accordingly, this study used the Start-up Behavior (opportunity discovery, opportunity utilization) as the main variable to verify the parameter effects, and empirically analyzed the factors of the start-up characteristics on the management performance of the start-up company. To achieve this goal, 221 technology-intensive start-ups 2 to 7 years old were surveyed and analyzed for 22 days from March 4 to March 25, 2019. In summary,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has been shown that "starting-up characteristics"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start-up behavior." Second, it has been shown that "creative behavior" has a positive influence on "management performance." Third, the effect of "starting-up characteristics" on "start-up behaviour" was shown to be different according to "population statistical characteristics (gender, educational background). Fourth, the effect of "starting up action" on "management performance" was shown to be different according to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gender, educational background). Finally, "Start-up Action" has been shown to have a mediated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tart-up Characteristics" and "management performance."

■ keyword : | Characteristics of Start-up | Start-up Company | Start-up Behavior | Management Performance | Job Creation |

* 본 연구는 2019학년도 광주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접수일자 : 2019년 07월 01일

수정일자 : 2019년 09월 23일

심사완료일 : 2019년 09월 23일

교신저자 : 유승옥, e-mail : soyoo@gwangju.ac.kr

I. 서론

창업기업은 국가 경제의 新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 원천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보도(19.4)한 “2017년 기준 창업지원기업 이력·성과 조사결과”자료에 의하면, 창업기업 평균 고용인원은 17.8% 증가하여 일반 중소기업 1.5%, 대기업 2.1%보다 큰 폭의 성장을 보였으며, 매출액 증가율도 창업기업은 전년대비 44.6%로 일반 중소기업 11.1%, 대기업 7.9% 보다 더 큰 폭의 성장률을 보였다. 기업의 생산성을 나타내는 총자본투자를 또한 창업기업이 33.3%로 중소기업 25.4%, 대기업 15.5% 보다 높게 나타나 생산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성과를 보였다[1].

이렇게 창업기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창업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강화되고 있으며, 창업 열기도 점점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일시적 현상이 아닌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창업기업이 생존 경쟁력을 갖춰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어야 한다. 이에 창업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창업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창업가 특징과 네트워크에 관한 분석(서행아, 2017; 이경우, 2018), 창업기업과 기업 간의 네트워크(박상문, 2019; 김진영, 2018), 기업역량과 기업성과(김영원, 2018; James, 2018), 창업가특성과 차별화전략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상백, 2018; Kapasuwan, 2014), CEO특성과 경영성과 분석(강병오, 2017), 창업기업의 혁신역량과 협력성과(김상순, 2017; 박재환, 2017), 네트워킹 활동과 경영성과(박재환, 2017; 윤방섭, 2018) 등이 그동안 주요 연구주제로 논의되어 왔다[2].

그러나, 창업기업이 생존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단계로 진입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기존 선행 연구자들이 주장하는 ‘창업가 역량’, ‘네트워크’, ‘차별화 전략’, ‘경영성과’ 만으로는 설명에 한계가 있으며, 보다 근본적인 요인을 찾아 분석 할 필요가 있다.

창업가 및 창업가의 행동에 대한 저명한 학자들의 연구를 살펴보면, 기업이 정신의 세계적 권위자인 워싱턴 대학교 Karl Vesper(2007)교수는 창업가는 ‘다른 사

람들이 발견하지 못한 기회’를 찾아내는 사람으로 정의하였으며, 창업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창업의 기회’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경영학의 아버지 Peter F. Drucker(1985)는 ‘창업이란 변화를 탐구하고 변화에 대응하여 변화를 기회로 활용 하는 자’ 라고 정의 하였으며, 창업가에게는 이윤의 극대화 보다 ‘기회의 극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창업가에게 있어서 기회발견과 기회활용이라고 하는 창업행동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창업행동(기회발견, 기회활용)을 주요변수로 활용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며, 창업가 특성이 창업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창업행동(기회발견, 기회활용)에 대한 연구는 학문적으로 창업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혀내고, 실무적으로 창업기업의 효율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표 1. 연구절차

| 단계 | 주요 내용 | 연구 방법 |
|----|--|-----------|
| 1 | [선행연구 분석] 이론적 배경 및 연구모형설계, 변수의 정의를 위한 선행연구 분석 | 문헌분석 |
| 2 | [연구 및 조사 설계]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변수의 조작적 정의, 설문지 설계 | 연구모형 가설설계 |
| 3 | [설문조사 실시] 조사대상: 221명, 주요조사 내용: 창업가 특성, 창업행동, 경영성과 등, 유의표본 추출 | 설문조사 |
| 4 | [통계 분석] 기술통계 분석, 요인분석, 평균차이분석, 상관관계 분석, 다중회귀분석, 매개효과분석 | 가설검증 |
| 5 | [논의 및 결론] 결론, 시사점 도출 및 논문의 한계, 참고문헌, 초록(국문, 영문) 작성 | 결과정리 |

II. 이론적 배경

1. 창업가 특성

자원기반 관점에 기초를 둔 경영성과의 결정요인으로서 가장 빈번하게 다루어져왔던 요인들 중에 하나는 창업가의 특성이다. 특히 규모가 작은 조직 일수록 창업가의 역할비중이 더욱 커짐으로써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창업기업의 경영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Mintzberg(1988)에 따르면 창업기업의 모든 것이 창업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있다. 최근 창업가의 개인적 특성관련 연구들은 조직차원에서 창업가정신을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등이

창업가 정신이라는 3개의 구성요소로 수렴되었다.

Schumpeter(1934)는 혁신성(innovativeness)을 '상례적인 활동에서 벗어나서 모든 물적 요소와 힘을 새로이 결합하는 것', 즉 '新결합'이라 보고 이것이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하였다. Drucker(1985)는 혁신을 창업가의 특별한 도구로 인식하고 서로 다른 사업과 서비스에 대한 기회로서 변화를 탐구하는 수단으로 간주하였다. Covin & Slevin(2009)은 혁신성을 시장 지향적인 아이디어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과정으로 제품의 디자인, 시장조사, 광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경영활동을 나타냈다[3].

진취성(proactiveness)은 '경쟁자들보다 한발 앞서 시장변화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행동'(김진영, 2017), 또는 '적극적으로 새로운 시장수요에 부응하려는 경영활동'(이춘우, 2018)으로 정의 된다. 또한 윤백중(2016)은 시장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시장으로의 진출 및 주도적인 역할을 새로운 경영활동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방안모색과 대응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강한 진취적 성향은 기업에게 시장에서 변화나 욕구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게 되며(강병오, 2017), 서해아(2018)의 경우 진취성에 대해서 새로운 아이디어의 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사업 환경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보유한 지적재산권의 해외진출시도, 새로운 지식의 습득을 위한 학습 프로그램에의 참여 등으로 나타내고 있다[4].

위험감수성(risk-taking)은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전부터 창업가정신의 핵심적 요소로 간주되어 왔다. Cantillon(1755)은 창업가는 '자신의 자본으로 위험을 감수하며 무역을 하는 사람'이며, 창업가정신을 '확실한 가격에 상품을 구입하여 불확실한 가격에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라 하였다[5].

Covin and Slevin(2011)은 위험감수성을 '낮은 위험의 프로젝트보다 높은 위험의 프로젝트를 선호하는 경향으로, 적극적으로 기회를 모색하고 추구하고자 하는 의욕'이라고 정의했고, Dessetal(2017)은 '새로운 사업성공의 확신이 없을지라도 과감하게 활동해서 가까이 새로운 사업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했다.

2. 창업행동

창업행동은 창업과 행동에 대한 합성어로 창업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다. 창업행동은 아이템이 선정되면 아이템을 사업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 아이템이 선정부터 아이템을 사업화하기 위한 노력이 창업행동이다. 창업행동에 대한 저명한 학자들의 연구를 살펴보면, Karl Vesper(2007)와 Peter F. Drucker(1985)는 창업행동의 핵심요소로, 기회발견과 기회활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6].

기회발견은 창의적이고 좋은 아이디어는 사업을 추진하는 창업자의 기본 도구이다. 창업자는 그것을 통해 사업기회를 포착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변화의 조짐과 패턴을 인식하는 데는 단순히 논리적이고, 선형적일 뿐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귀납적으로, 연상적으로 또는 직관력으로 재구성하는 창의적 사고력이 필요하다(Vesper, 2016). 즉, 남보다 앞서 특정한 부문이나 시장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전혀 새로운 기술적, 사회적 노하우로 연결시킴으로써 좋은 사업기회를 발견 할 수 있다[7].

기회활용은 기회의 인식과 활용 측면에 관한 관점이다. Davidsson(2014)은 "기회인식은 초기 인식이며 기회 활용은 모험적 정신의 발전이다."라 정의 하였고 기회활용은 "새로운 모험 정신에 기초한 행동의 결정이자 현실화를 위해 취해지는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 기회활용은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의사결정과 이와 관련한 행동 즉, 목표지향을 위한 창업가적 노력과 열정을 의미한다(Baron and Locke, 2018; Cardon et al., 2017; Shane, Locke and Collins, 2016). 이러한 창업가 행동의 기회활용은 기존연구와 비교하여 가장 이론적으로 체계화되어 있는 유용한 개념이다[8].

3. 경영성과

일반적으로 창업기업의 경영성과는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로 분류한다.

재무적 성과는 영업이익, 투자수익률 등의 재무적 측정치는 기업의 전반적인 성과를 종합적으로 표현한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동안의 선행연구에서는 영업이익의 개선 정도, 제조원가 절감, 매출증가

을, 시장점유율, 수익성인 매출액 이익률과 자본이익률을 활용하여 창업기업의 경영성과를 분석하였다(강민수, 2017; 김재룡, 2017; 박재성, 2017; 이명용, 2018).

경영성과를 계획과 통제라고 하는 경영의 측면에서 보면 재무적 측정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 역기능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효율적인 내부적인 업무프로세스의 운영과 효과적인 전략적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과업이 수행되는 과정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는 성과측정치의 도입이 요구 된다. 이러한 측정치는 반드시 재무적일 필요는 없으며 비재무적인 측정치라도 의도하는 바를 적합하게 측정 보고할 수만 있으면 될 것이다[9].

비재무적 성과는 기업의 성과를 측정함에 있어 기업의 재무적 성과를 제외한 친환경(environment), 사회적 기여(social), 투명한 지배구조(governance) 등의 분야에서의 기업성과를 가리킨다. 재무적인 요소에서 드러나지 않는 기업의 사회적 활동을 계량화해 기업의 계속 경영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지표로, 유엔 사회책임투자 원칙(UN PRI)에서 투자이사 결정 시 고려하도록 하는 핵심 평가 요소다. 유럽과 미국 등 일부 선진국의 경우 거래소 상장 규정에 비재무적 정보 공시를 제도화하고 있다[10].

4. 선행연구 분석

창업행동이 창업가 특성과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자료를 2015년 이후 논문 및 저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창업가 특성과 네트워크에 관한 분석(강민수, 2017; 이재식, 2017), 창업기업과 기업 간의 네트워크(김동희, 2017; 이경우, 2018), 기업역량과 기업성과(김영원, 2018), 창업가특성과 차별화전략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민경세, 2017; 이명용, 2018), CEO특성과 경영성과분석(박상문, 2019; 최병준, 2015), 창업기업의 혁신역량과 협력성과(박재환·김용태, 2017), 네트워크 성과분석(윤방섭, 2018), 창업기업의 네트워크 활동과 기업성과 간의 분석(이상백, 2018), 창업가의 역량과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조연성, 2018), CEO의 특성(심리, 관리)에 따른 경영성과 분석, 창업기업의 지속 가능성장

요인 분석(원중하, 2016), 창업기업의 혁신역량과 네트워크 성장요인 분석(이민용, 2018; 연찬호, 2017)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11].

그러나, Karl Vesfer(2007), Peter F. Drucker(1985) 등 유명한 경영·경제학자들이 언급 하였듯이, 창업가에게 있어서 창업행동(기회발견, 기회활용)은 매우 중요한데 창업행동에 관한 연구는 그동안 미흡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창업행동(기회발견, 기회활용)을 매개 효과로 하여 창업가 특성과 창업기업의 경영성과를 분석한 논문은 전무하여, 본 연구가 기존 논문과의 차별성이 크며, 학술연구가치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을 수립하고, 창업행동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창업가 특성이 창업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창업가 특성(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이 창업행동(기회발견, 기회활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며, 둘째, 창업행동(기회발견, 기회활용)은 창업기업의 경영성과(재무적 성과, 비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성별, 학력)에 따라, 창업가 특성이 창업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넷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성별, 학력)에 따라, 창업행동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다섯째, 창업행동이 창업가 특성과 경영성과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발생하는지 검증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검증하기 위해서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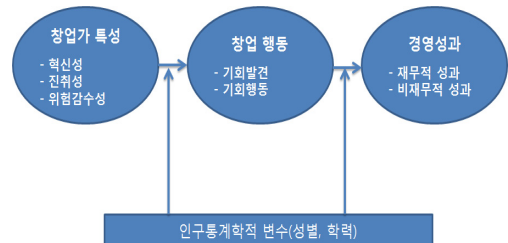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2. 가설설정

2.1 “창업가 특성”과 “창업행동”의 관계

창업가 특성은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이 포함된다. “혁신성”은 창조적인 행동, 새로운 것(제품, 기술, 조직 등)을 만들어 내는 능력,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 수용 능력,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능력 등이 포함된다. “진취성”은 신제품 개발 시 진취적인 사고방식으로 경쟁업체를 앞서려고 노력하는 정도, 고생을 하더라도 진취적인 일을 하고 싶은 욕망, 新 시장에서 주도적으로 시장선점을 위해 독창적인 마케팅 구사 능력 등이다. 마지막으로 “위험 감수성”은 리스크가 있더라도 새로운 것을 추진하려는 전략, 사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크고 작은 위험을 감수하는 특성, 수익이 확실하게 예상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사업에 뛰어드는 능력, 불확실한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투자전략과 성장전략을 수립하여 실천에 옮기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 하였다.

H1: “창업가 특성(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은 “창업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창업행동”과 “경영성과”의 관계

창업행동은 “기회발견”과 “기회활용”이 포함된다. “기회발견”은 창업 아이디어 선정의 신중성, 잠재적인 창업 아이디어와 아이템에 대한 고민, 창업 전 교육, 세미나를 통한 학습성, 창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등이 포함된다. “기회활용”은 창업 전 동종업계의 사업경험, 창업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발상, 창업기회의 체계적인 탐색, 창업가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기술)를 창업에 활용하는 정도 등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 하였다.

H2: “창업행동(기회발견, 기회활용)”은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창업가 특성”과 “창업행동”의 조절효과

창업을 연구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성별, 학력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창업가 특성”이 “창업행동”

에 미치는 조절효과가 발생함을 확인되고 있다[12]. 즉, 성별, 학력에 따라 창업가의 특성이 창업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3: “인구통계학적 특성(성별, 학력)”에 따라 “창업가 특성”이 “창업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2.4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창업행동”과 “경영성과”의 조절효과

조절변수(성별, 학력)는 독립변수(창업행동)와 종속변수(경영성과)사이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도 창업기업의 경우, 조절변수의 특성에 따라 창업행동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13]. 이러한 선행연구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4: “인구통계학적 특성(성별, 학력)”에 따라 “창업행동”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2.5 “창업행동”에 따른 “창업가 특성”과 “경영성과”의 매개효과

창업행동은 사업기회를 찾아내는 기술을 의미하는 기회발견과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행동을 나타내는 기회활용 등 2개의 하위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창업행동이 개념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선행연구에서 창업가 특성과 창업행동의 관계를 창업행동이 매개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14]. 창업가 특성이 창업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창업행동은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15].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5: “창업행동”은 “창업가 특성”과 “경영성과”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3. 변수의 조작 정의

3.1 창업가 특성

창업가 특성은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이 포함 된다. Begley와 Boyd(2017)는 창업가 특성 연구에서 창업가의 혁신성과 위험감수성은 경영성파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특성이라 하였으며, 이들은 창업가 특성을 혁신성, 적극성, 위험감수성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창업가 특성은 기업성과와 중요한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주장 하였다. 진취성(proactiveness)은 시장 내 경쟁자에 대한 적극적인 경쟁의지와 우월한 성과를 산출하려는 의지를 보이거나, 시장 내 지위를 바꾸기 위해경쟁자에 대해 직접적이고 강도 높은 수준으로 도전하는 자세를 의미하며(Lumpkin & Dess, 2016), ‘경쟁자들보다 한발 앞서 시장변화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행동’(김진영, 2018), 또는 ‘적극적으로 새로운 시장 수요에 부응하려는 경영활동’(이춘우, 2018)으로 정의 된다.

3.2 창업행동

창업행동이란 창업가의 특성 가운데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속성을 의미한다. Shaneetal(2016)은 창업행동의 과정에서 개인적 태도와 환경적 요인의 동기요인이 각각 발견행동과 기회발견, 기회활용으로 직접 이어지고, 각 단계에서 기업가적 기회가 영향을 미치는 창업과정 모델을 제시 하였는데, 이 모델에서는 실제 실행 단계에 이르기 전에 기회발견단계와 기회활용단계가 선행적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3.3 경영성과

경영성과는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가 포함 된다. 창업기업의 경영성과를 측정하는 연구에서 사용되는 지표는 주관적 지표와 객관적 지표로 구분 할 수 있으며, 객관적 지표는 다시 재무적 지표와 비재무적 지표로 구분할 수 있다. Tsailan(1991)은 창업기업 경영성과측정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객관적 지표로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를 활용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4. 설문지 작성과 구성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설문지는 3개의 측정기준을 바탕으로 총 3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창업가 특성’에 관하여, 혁신성(4문항), 진취성(4문항), 위험감수성(4문항)을 항목으로 설정했다. 둘째, ‘창업행동’에 관하여 기회발견(4문항), 기회활용(4문항)을 설정했다. 셋째, ‘경영성과’에 관하여 재무적성과(4문항), 비재무적성과(4문항)를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구 통계학 자료로, 성별, 학력 등 2개 문항을 설정을 설정하였다. 최종 확정된 설문지는 [표 2]와 같다.

5.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각 변수에 대하여 작성된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대상은 창업이후 2~7년 된 기술집약적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는 2019년 3월 4일 부터 3월 25일까지 22일간 실시하였으며, 총 2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221부를 회수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설문지는 3개의 측정기준을 바탕으로 총 3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창업가 특성’에 관하여, 혁신성(4문항), 진취성(4문항), 위험감수성(4문항)을 항목으로 설정했다. 둘째, ‘창업행동’에 관하여 기회발견(4문항), 기회활용(4문항)을 설정했다. 셋째, ‘경영성과’에 관하여, 재무적성과(4문항), 비재무적성과(4문항)를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구 통계학 자료로, 성별, 학력 등 2개 문항을 설정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문항을 제외하면 모두 Likert 방식의 5점 척도로서, 매우 그렇다 5점, 다소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별로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된 연구변수에 대한 척도의 신뢰성 검증은 데이터들이 표준화되어 있으므로 평균상관관계에 근거하여 Cronbach's alpha 값을 구하였으며, 요인분석 및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최종분석에 통계 처리는 SPSS Statistics 22.0 통계 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중회귀분석, 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이를 통해 연구의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한 개별적인 가설을 검증하였다.

표 2. 설문지 문항

| 구분 | | 항목 | 출처 |
|-----------------------------------|--------|------------------------------------|---------------------------|
| 창업가 특성 | 혁신성 | - 창조적인 행동 | 노형진 (2015), 강순빈 (2016) |
| | | - 새로운 것(제품, 기술, 조직 등)을 만들어 내는 능력 | |
| | | -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 수용 능력 | |
| | | -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능력 | |
| | 진취성 | - 진취적인 사고방식으로 경쟁업체를 앞서려고 노력하는 정도 | 윤백중 (2017), 조연성 (2018) |
| | | - 고생을 하더라도 진취적인 일을 하고 싶은 욕망 | |
| | | - 새로운 시장창출과 주도적 지위확보를 위한 노력 | |
| | | -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마케팅 전략구사를 위한 노력 | |
| | 위험감수성 | - 리스크가 있더라도 새로운 것을 추진하려는 전략 | 김영래 (2016), 상창수 (2019) |
| - 사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크고 작은 위험을 감수하는 특성 | | | |
| -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사업에 뛰어드는 능력 | | | |
| 창업행동 | 기회발견 | - 투자전략과 성장전략을 수립하여 실천에 옮기는 능력 | Vesper (0214), 케이스 (2017) |
| | | - 창업 아이디어 선정의 신중성 | |
| | | - 잠재적인 창업 아이디어와 아이템에 대한 고민 | |
| | | - 창업전 교육, 세미나를 통한 학습성 | |
| | 기회활용 | - 창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 조병주 (2017), 이춘우 (2018) |
| | | - 창업 전 동종업계의 사업경험 | |
| | | - 창업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발상 | |
| | | - 창업기회의 체계적인 탐색 | |
| | | - 창업가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기술)를 창업에 활용하는 정도 | |
| 경영성과 | 재무적성과 | - 매출액 증가율 | 이경민 (2018), 민경세 (2017) |
| | | - 시장 점유율 | |
| | | - 종업원 1인당 매출액 증가율 | |
| | | - 종업원 1인당 경상이익 증가율 | |
| | 비재무적성과 | - 출시되는 신제품 수의 증가 | McGee (2018), 윤계형 (2017) |
| | | - 제품의 경쟁력 강화 | |
| | | - 회사의 고용창출 증가 | |
| | | - 자사 제품의 브랜드 인지도 강화 | |
| | | - 자사 제품의 브랜드 인지도 강화 | |

IV. 분석결과

1. 표본의 특성

조사대상자 221명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3]에 제시하였다. 성별로는 남성이 133명(60.2%), 여성은 88명(39.8%)이었다. 연령은 만28-31세가 95명으로 전체 조사대상자의 43.0%를 차지하였으며, 만32세 이상 83명(37.6%), 만24-27세 27명(12.2%), 만20-23세 16명(7.2%) 순이었다.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131명으로 전체 조사대상자의 59.3%를 차지하였으며 고등학교 졸업 57명(25.8%), 대학원 졸업 33명(14.9%) 순이었다.

2. 기술통계

조사대상자의 창업가 특성, 창업행동, 경영성과에 대한 응답수준을 살펴본 기술통계는 [표 4]에 제시되었다. 창업행동은 4.05로 주요 변수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창업가 특성이 3.93, 경영성과가 3.62 순으로

표 3.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분포

| 구분 | | 빈도(N) | 퍼센터(%) |
|----|---------|-------|--------|
| 전체 | | 221 | 100.0 |
| 성별 | 남성 | 133 | 60.2 |
| | 여성 | 88 | 39.8 |
| 연령 | 만20~23세 | 16 | 7.2 |
| | 만24~27세 | 27 | 12.2 |
| | 만28~31세 | 95 | 43.0 |
| | 만32세 이상 | 83 | 37.6 |
| 학력 | 고등학교 졸업 | 57 | 25.8 |
| | 대학교 졸업 | 131 | 59.3 |
| | 대학원 졸업 | 33 | 14.9 |

나타났다. 창업가 특성의 3개 하위요인 중 혁신성이 4.06으로 가장 높았으며 진취성 3.96, 위험감수성 3.76 순으로 나타났다. 창업행동의 2개 하위요인 중 기회활용은 4.08로 기회발견 4.03에 비해 근소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하위요인 간에 차이가 크지 않았다. 경영성과의 2개 하위요인 중 비재무적 성과는 3.73으로 재무적 성과 3.51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4. 연구변인의 기술통계 결과

| 구분 | 평균 | 표준편차 |
|--------|------|------|
| 창업가 특성 | 3.93 | .46 |
| 혁신성 | 4.06 | .49 |
| 진취성 | 3.96 | .62 |
| 위험감수성 | 3.76 | .72 |
| 창업행동 | 4.05 | .51 |
| 기회발견 | 4.03 | .54 |
| 기회활용 | 4.08 | .66 |
| 경영성과 | 3.62 | .58 |
| 재무적성과 | 3.51 | .56 |
| 비재무적성과 | 3.73 | .70 |

3.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독립변인인 창업가 특성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창업가 특성을 구성하는 12개 문항 중 8번 문항(나는 시장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마케팅 전략을 구사한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요인적재량을 충족하지 못하여 제외하였고 11개 문항에 대해 요인분석을 재 실시한 결과,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추출된 요인은 창업가 특성의 하위요인인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을 수용하였다. 변수간 상관성을 측정하는 KMO값은 .74, Barlett의 구형성 검정($\chi^2=298.68$, $p<.000$)결과에서도 요인분석에 적절한 변수가 선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전체 총분산에 대한 설명비율은 59.364%로 나타났다.

그리고 혁신성의 크론바하 알파계수는 .77, 진취성의 크론바하 알파계수는 .74, 위험감수성의 크론바하 알파계수는 .82로 항목 간 내적 일관성에서 높은 신뢰성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 독립변인(창업가 특성)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 구분 | 성분 | | | 크론바하 알파계수 | |
|-----|--------------------------------|------|-----|-----------|-----|
| | 1 | 2 | 3 | | |
| 혁신성 | 창조적인 행동 | .03 | .13 | .62 | .77 |
| | 새로운 것(제품, 기술, 조직 등)을 만들어 내는 능력 | .15 | .08 | .70 | |
| |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 수용 능력 | .17 | .19 | .62 | |
| |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능력 | .11 | .15 | .61 | |
| | 진취적인 사고방식으로 경쟁업체를 앞서려고 노력하는 정도 | -.03 | .63 | .40 | |
| 진취성 | 고생을 하더라도 진취적인 일을 하고 싶은 욕망 | .06 | .73 | .09 | .74 |
| | 새로운 시장창출과 주도적 | .19 | .69 | .12 | |

| 구분 | 성분 1 | 성분 2 | 성분 3 | 크론바하 알파계수 | |
|-------|---------------------------------|-------|-------|-----------|-----|
| 위험감수성 | 리스크가 있더라도 새로운 것을 추진하려는 전략 | .75 | .07 | .10 | .82 |
| | 사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크고 작은 위험을 감수하는 특성 | .72 | .16 | .00 | |
| |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사업에 뛰어드는 능력 | .73 | .06 | .13 | |
| | 투자전략과 성장전략을 수립하여 실천에 옮기는 능력 | .63 | .05 | .21 | |
| 전체 | 2.29 | 1.90 | 1.73 | | |
| % 분산 | 19.08 | 15.84 | 14.45 | | |
| % 누적 | 19.08 | 44.92 | 59.36 | | |

KMO측도(.74), Barlett의 구형성 검정($\chi^2=298.68$, $p<.001$)

매개변인인 창업행동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창업행동을 구성하는 8개 문항 중 8번 문항(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활용하여 창업에 활용하고 있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요인적재량을 충족하지 못하여 제외하였고 7개 문항에 대해 요인분석을 재 실시한 결과, 2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추출된 요인은 창업행동의 하위요인인 기회발견과 기회활용을 수용하였다.

변수 간 상관성을 측정하는 KMO값은 .78, Barlett의 구형성 검정($\chi^2=193.37$, $p<.001$)결과에서도 요인분석에 적절한 변수가 선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총분산에 대한 설명비율은 52.37%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회발견의 크론바하 알파계수는 .76, 기회활용의 크론바하 알파계수는 .79로 항목 간 내적 일관성에서 높은 신뢰성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6. 매개변인(창업행동)의 주성분분석 및 신뢰도 분석

| 구분 | 성분 | | 크론바하 알파계수 | |
|------|---------------------------|-------|-----------|-----|
| | 1 | 2 | | |
| 기회발견 | 창업 아이디어 선정의 신중성 | .65 | .06 | .76 |
| | 잠재적인 창업 아이디어와 아이템에 대한 고민 | .63 | .08 | |
| | 창업전 교육, 세미나를 통한 학습성 | .61 | .30 | |
| | 창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 .68 | .28 | |
| 기회활용 | 창업 전 동종업계의 사업경험 | .06 | .82 | .79 |
| | 창업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발상 | .15 | .77 | |
| | - 창업기회의 체계적인 탐색 | .49 | .65 | |
| 전체 | 1.82 | 1.57 | | |
| % 분산 | 22.73 | 19.64 | | |
| % 누적 | 22.73 | 52.37 | | |

KMO측도(.78), Barlett의 구형성 검정($\chi^2=193.37$, $p<.001$)

종속변인인 경영성과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경영성과를 구성하는 8개 문항 중 5번 문항(출시되는 신제품 수가 증가하였

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요인적재량을 충족하지 못하여 제외하였고 7개 문항에 대해 요인분석을 재실시한 결과, 2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추출된 요인은 경영성과의 하위요인인 재무적성과와 비재무적성과를 수용하였다. 변수간 상관성을 측정하는 KMO값은 .82, Barlett의 구형성 검정($\chi^2=222.76, p<.001$)결과에서도 요인분석에 적절한 변수가 선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전체 총분산에 대한 설명비율은 53.49%로 나타났다. 그리고 재무적성과의 크론바하 알파계수는 .76, 비재무적성과의 크론바하 알파계수는 .72로 항목 간 내적 일관성에서 높은 신뢰성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7. 종속변인(경영성과)의 주성분분석 및 신뢰도 분석

| 구분 | | 성분 | | 크론바하 알파계수 |
|------------|-------------------|-------|-------|--------------|
| | | 1 | 2 | |
| 재무적 성과 | 매출액 증가율 | .63 | .13 | .76 |
| | 시장 점유율 | .69 | .07 | |
| | 종업원 1인당 매출액 증가율 | .72 | .07 | |
| | 종업원 1인당 경상이익 증가율 | .73 | .26 | |
| 비재무적 성과 | 제품의 경쟁력 강화 | .21 | .71 | .72 |
| | 회사의 고용창출 증가 | .15 | .72 | |
| | 자사 제품의 브랜드 인지도 강화 | .07 | .71 | |
| | 전체 | 2.27 | 2.01 | |
| % 분산 | | 28.36 | 25.13 | |
| % 누적 | | 28.36 | 53.49 | |

KMO측도(.82), Barlett의 구형성 검정($\chi^2=222.76, p<.001$)

4. 상관관계분석 결과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표 8]에 제시하였다.

창업가 특성과 창업행동 간에는 $r=.69$ 의 정의 상관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타 연구변인 간 상관성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상관성을 보이고 있다. 창업행동과 경영성과 간에는 $r=.53$, 창업가특성과 경영성과 간에는 $r=.47$ 의 정의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연구변인 간 상관분석 결과

| 구분 | 창업가특성 | 창업행동 | 경영성과 |
|-------|--------|--------|------|
| 창업가특성 | 1 | | |
| 창업행동 | .69*** | 1 | |
| 경영성과 | .47*** | .53*** | 1 |

* $p<.05$, ** $p<.01$, *** $p<.001$

다음으로는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창업가 특성과 창업행동, 경영성과의 세부변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9]에 제시하였다.

창업가 특성의 하위요인 간 상관관계는 혁신성과 위

협감수성($r=.59, p<.001$)이 정(+)의 상관관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혁신성과 진취성($r=.49, p<.001$), 진취성과 위험감수성($r=.37, p<.001$) 순으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창업행동의 하위요인인 기회발견과 기회활용 간에는 정(+)의 상관관계($r=.41,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영성과의 하위요인인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간에도 정(+)의 상관관계($r=.70, p<.001$)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창업행동의 하위요인 중 기회활용은 창업가 특성의 세부변인인 혁신성($r=.50, p<.001$)과 위험감수성($r=.54, p<.001$)간에 상관정도가 다른 하위요인들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창업가 특성의 하위요인들은 경영성과의 하위요인인 재무적 성과와는 .4 이상 상관정도를 고르게 보이고 있는 반면, 비재무적 성과와는 혁신성($r=.49, p<.001$), 위험감수성($r=.41, p<.001$), 진취성($r=.36, p<.001$) 순의 상관정도를 보이고 있다.

표 9. 연구변인의 하위요인 간 상관분석 결과

| 구분 | 창업가특성 | | | 창업행동 | | 경영성과 | |
|---------|--------|--------|-----------|----------|----------|-----------|------------|
| | 혁신성 | 진취성 | 위협 감수성 | 기회 발견 | 기회 활용 | 재무적 성과 | 비재무 적성과 |
| 혁신성 | 1 | | | | | | |
| 진취성 | .49*** | 1 | | | | | |
| 위협 감수성 | .59*** | .37** | 1 | | | | |
| 기회 발견 | .46*** | .36** | .37** | 1 | | | |
| 기회 활용 | .50*** | .38*** | .54*** | .41*** | 1 | | |
| 재무적 성과 | .44** | .47*** | .46*** | .35** | .38** | 1 | |
| 비재무적 성과 | .49*** | .36** | .40*** | .44*** | .45*** | .70*** | 1 |

* $p<.05$, ** $p<.01$, *** $p<.001$

5. 가설검증 및 논의

5.1 “창업가 특성”이 “창업행동”에 미치는 영향

창업가 특성이 창업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검증하기 위해 창업가 특성의 하위요인인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을 독립변인, 창업행동의 하위요인인 기회발견과 기회활용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각각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0]과 같다.

먼저 창업가 특성의 3개 하위요인과 창업행동 중 기회발견 간 회귀모형에서는 전체 모형의 적합도인 F값이 9.54로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으며, R²는 .28로 분석결과에서 얻어진 회귀식이 전체 회귀모델의 28%를 설명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기회발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창업가 특성 하위요인은 위험감수성($\beta=.34, p<.01$)으로 확인되었으며 혁신성($\beta=.30, p<.05$), 진취성($\beta=.24, p<.05$)순으로 기회발견에 정(+)의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창업가 특성의 3개 하위요인과 기회활용 간 회귀모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형적합도 ($F=17.29, p<.001$)와 41%의 모형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기회활용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창업가 특성 하위요인은 기회발견과 마찬가지로 위험감수성($\beta=.39, p<.001$)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진취성($\beta=.25, p<.01$), 혁신성($\beta=.24, p<.05$)순으로 기회활용에 정(+)의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창업가특성과 창업행동간 회귀분석 결과

| 종속 변수 | 독립 변수 | B | β | t | 유의 확률 | F | R (R ²) |
|-------|-------|------|---------|------|-------|----------|---------------------|
| 기회 발견 | (상수) | 1.48 | | 3.04 | .003 | 9.54*** | .53 (.28) |
| | 혁신성 | .27 | .30* | 2.54 | .013 | | |
| | 진취성 | .21 | .24* | 2.33 | .022 | | |
| | 위험감수성 | .30 | .34** | 3.19 | .002 | | |
| 기회 활용 | (상수) | .56 | | 1.04 | .303 | 17.29*** | .64 (.41) |
| | 혁신성 | .22 | .24* | 2.28 | .025 | | |
| | 진취성 | .24 | .25** | 2.72 | .008 | | |
| | 위험감수성 | .36 | .39*** | 3.83 | .000 | | |

* p<.05, ** p<.01, *** p<.001

5.2 “창업행동”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창업행동이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검증하기 위해 창업행동의 하위요인인 기회발견, 기회활용을 독립변인, 경영성과의 하위요인인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각각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1]과 같다.

먼저 창업행동의 2개 하위요인과 경영성과 중 재무적 성과 간 회귀모형에서는 전체 모형의 적합도인 F값이 8.72으로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R²는 .19로 분석결과에서 얻어진 회귀식이 전체 회귀모델의 19%를 설명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창업행동 하위요인의 영향력은 기회활용($\beta=.29, p<.05$)이 기회발견($\beta=.23, p<.05$)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창업행동의 2개 하위요인과 비재무적 성과 간 회귀모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형적합도($F=14.87, p<.001$)와 28%

의 모형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비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창업행동 하위요인의 영향력은 재무적 성과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와 마찬가지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창업가 특성 하위요인은 기회발견과 마찬가지로 기회활용($\beta=.32, p<.01$)이 기회발견($\beta=.31, p<.01$)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창업행동과 경영성과 간 회귀분석 결과

| 종속 변수 | 독립 변수 | B | β | t | 유의 확률 | F | R (R ²) |
|---------|-------|------|---------|------|-------|----------|---------------------|
| 재무적 성과 | (상수) | 1.56 | | 3.24 | .002 | 8.72*** | .43 (.19) |
| | 기회발견 | .24 | .23* | 2.21 | .038 | | |
| | 기회활용 | .24 | .29* | 2.52 | .014 | | |
| 비재무적 성과 | (상수) | .74 | | 1.33 | .188 | 14.87*** | .53 (.28) |
| | 기회발견 | .40 | .31** | 2.90 | .005 | | |
| | 기회활용 | .34 | .32** | 3.03 | .003 | | |

* p<.05, ** p<.01, *** p<.001

5.3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창업가 특성이 창업 행동에 미치는 영향

5.3.1 성별

창업가 특성과 창업행동 간 관계에서 성별에 따라 그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변인인 창업가 특성의 하위요인인 혁신성과 진취성, 위험감수성, 성별 더미변수를 투입하였고, 창업행동의 기회발견과 기회활용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2]에 제시하였다.

성별에 따라 창업가 특성이 창업행동의 기회발견과 기회활용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 더미변수의 회귀계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창업가특성과 기회발견 간 관계에서는 여자에 비해 남자가 .17배($p<.05$), 창업가 특성과 기회활용은 여자에 비해 남자가 .23배($p<.01$) 관계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성별 창업가특성과 창업행동간 회귀분석

| 종속 변수 | 독립 변수 | B | β | t | 유의 확률 |
|-------|-------|------|---------|------|-------|
| 기회발견 | (상수) | 2.45 | | 8.15 | .000 |
| | 혁신성 | .16 | .15* | 2.19 | .030 |
| | 진취성 | .10 | .14* | 2.11 | .036 |
| | 위험감수성 | .15 | .23** | 3.44 | .001 |
| 기회활용 | (상수) | 2.04 | | 5.39 | .000 |
| | 혁신성 | .20 | .15* | 2.19 | .029 |
| | 진취성 | .12 | .13 | 1.97 | .051 |
| | 위험감수성 | .21 | .25*** | 3.75 | .000 |
| | d | .19 | .23** | 3.28 | .002 |

* p<.05, ** p<.01, *** p<.001

더미지정 : 남자(d=1), 여자(d=0)

5.3.2 학력별

창업가 특성과 창업행동 간 관계에서 학력에 따라 그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변인인 창업가 특성의 하위요인인 혁신성과 진취성, 위험감수성, 학력 더미변수를 투입하였고, 창업행동의 기회발견과 기회활용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3]에 제시하였다.

학력에 따라 창업가 특성이 창업행동의 기회발견과 기회활용에 미치는 영향은 학력 더미변수의 회귀계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창업가특성과 기회발견 간 관계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관계성이 점점 커져 고졸에 비해 대졸이 .16배($p < .05$), 대학원졸이 .22배 ($p < .01$), 창업가특성과 기회활용에서도 고졸에 비해 대졸이 .14배($p < .05$), 대학원졸이 .26배($p < .001$) 관계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학력별 창업가특성과 창업행동간 회귀분석

| 종속 변수 | 독립 변수 | B | β | t | 유의 확률 |
|-------|-------|------|---------|------|-------|
| 기회발견 | (상수) | 2.46 | | 8.16 | .000 |
| | 혁신성 | .16 | .15* | 2.18 | .030 |
| | 진취성 | .10 | .14* | 2.08 | .038 |
| | 위험감수성 | .15 | .23** | 3.43 | .001 |
| | d1 | .09 | .16* | 2.34 | .024 |
| | d2 | .13 | .22** | 3.16 | .003 |
| 기회활용 | (상수) | 2.04 | | 5.38 | .000 |
| | 혁신성 | .19 | .14* | 2.10 | .037 |
| | 진취성 | .12 | .12 | 1.87 | .062 |
| | 위험감수성 | .21 | .26*** | 3.95 | .000 |
| | d1 | .07 | .14* | 2.07 | .042 |
| | d2 | .18 | .26*** | 3.96 | .000 |

* $p < .05$, ** $p < .01$, *** $p < .001$
 더미지정 : 고졸($d_1=0, d_2=0$), 대졸($d_1=1, d_2=0$), 대학원졸($d_1=0, d_2=1$)

5.4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창업행동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5.4.1 성별

창업행동과 경영성과 간 관계에서 성별에 따라 그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변인인 창업행동의 하위요인인 기회발견과 기회행동, 성별 더미변수를 투입하였고, 경영성과의 재무적성과와 비재무적성과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4]에 제시하였다.

성별에 따라 창업행동이 경영성과의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 더미변수의 회귀

계수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창업행동과 재무적 성과 간 관계에서는 여자에 비해 남자가 .26배($p < .001$), 창업행동과 비재무적 성과는 여자에 비해 남자가 .17배 ($p < .01$) 관계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성별 창업행동과 경영성과 간 회귀분석

| 종속 변수 | 독립 변수 | B | β | t | 유의 확률 |
|--------|-------|------|---------|------|-------|
| 재무적성과 | (상수) | 1.83 | | 5.06 | .000 |
| | 기회발견 | .18 | .15* | 2.18 | .030 |
| | 기회행동 | .27 | .28** | 4.22 | .000 |
| | d | .24 | .26*** | 3.97 | .000 |
| 비재무적성과 | (상수) | 1.61 | | 3.33 | .001 |
| | 기회발견 | .31 | .19** | 2.84 | .005 |
| | 기회행동 | .24 | .19** | 2.77 | .006 |
| | d | .23 | .17** | 2.53 | .009 |

* $p < .05$, ** $p < .01$, *** $p < .001$
 더미지정 : 남자($d=1$), 여자($d=0$)

5.4.2 학력별

창업행동과 경영성과 간 관계에서 학력에 따라 그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변인인 창업행동의 하위요인인 기회발견과 기회행동, 학력 더미변수를 투입하였고, 경영성과의 재무적성과와 비재무적성과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5]에 제시하였다.

학력에 따라 창업행동이 경영성과의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학력 더미변수의 회귀계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창업행동과 재무적 성과 간 관계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관계성이 점점 커져 고졸에 비해 대졸이 .17배($p < .05$), 대학원졸이 .20배 ($p < .01$), 창업행동과 비재무적 성과에서도 고졸에 비해 대졸이 .17배($p < .05$), 대학원졸이 .26배($p < .001$)관계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학력별 창업행동과 경영성과간 회귀분석

| 종속 변수 | 독립 변수 | B | β | t | 유의 확률 |
|--------|-------|------|---------|------|-------|
| 재무적성과 | (상수) | 1.79 | | 5.02 | .000 |
| | 기회발견 | .17 | .14* | 2.10 | .037 |
| | 기회행동 | .25 | .26*** | 4.02 | .000 |
| | d1 | .19 | .17* | 2.54 | .009 |
| | d2 | .30 | .20** | 3.07 | .002 |
| 비재무적성과 | (상수) | 1.65 | | 3.42 | .001 |
| | 기회발견 | .30 | .19** | 2.74 | .007 |
| | 기회행동 | .23 | .18** | 2.68 | .008 |
| | d1 | .13 | .17* | 2.25 | .024 |
| | d2 | .21 | .26*** | 3.94 | .000 |

* $p < .05$, ** $p < .01$, *** $p < .001$
 더미지정 : 고졸($d_1=0, d_2=0$), 대졸($d_1=1, d_2=0$), 대학원졸($d_1=0, d_2=1$)

5.5 “창업가 특성”과 “경영성과” 간 관계에서 “창업 행동”의 매개효과

창업가 특성과 경영성과의 관계에서 창업행동이 어떠한 매개효과를 갖는지를 3단계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고 그 결과는 [표 16]과 같다. 창업가 특성을 독립변수로 하고 종속변인인 경영성과를 종속변수로 하는 1단계 회귀모형에서는 창업가 특성의 회귀계수가 .47($p < .001$)로 나타났다. 창업가 특성을 독립변수로 하고 매개변인인 창업행동을 종속변수로 하는 2단계 회귀모형에서는 창업가 특성의 회귀계수가 .69($p < .001$), 독립변인인 창업가 특성과 매개변인인 창업행동을 독립변수로 하고 경영성과를 종속변수로 하는 3단계 회귀분석에서는 창업가 특성의 회귀계수가 .20($p < .05$), 창업행동의 회귀계수는 .39($p < .01$)로 나타났다.

1단계 회귀모형에서는 창업가 특성이 종속변인인 경영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t=4.66, p < .001$), 2단계 회귀모형에서는 창업가 특성은 매개변인인 창업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8.44, p < .001$). 3단계 회귀모형에서는 창업가 특성($t=2.30, p < .05$)과 창업행동($t=2.92, p < .01$) 모두 경영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단계에서의 창업가 특성의 효과($\beta=.47, p < .001$)가 3단계에서의 창업가 특성의 효과($\beta=.20, p < .05$)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창업가 특성과 경영성과의 관계에서 창업행동은 매개효과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설명력을 나타내는 R²값은 1단계 22%, 2단계 30%, 3단계 48%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다.

표 16. 창업가특성과 경영성과 간 관계에서 창업행동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 단계 | 종속 변수 | 독립 변수 | B | β | t | 유의 확률 | F | R ² |
|-----|-------|--------|------|------------------|------|-------|----------|----------------|
| I | 경영 성과 | (상수) | 1.28 | | 2.54 | .003 | 21.72*** | .22 |
| | | 창업가 특성 | .60 | .47*** | 4.66 | .000 | | |
| II | 창업 행동 | (상수) | 1.04 | | 2.91 | .005 | 25.28*** | .30 |
| | | 창업가 특성 | .77 | .69*** | 8.44 | .000 | | |
| III | 경영 성과 | (상수) | .81 | | 1.60 | .003 | 71.19*** | .48 |
| | | 창업가특성 | .38 | .20 [*] | 2.30 | .024 | | |
| | | 창업 행동 | .45 | .39** | 2.92 | .005 | | |

^{*} $p < .05$, ^{**} $p < .01$, ^{***} $p < .001$

5.6 연구모형 가설검증 결과

본 연구에 대한 연구모형 가설검증 결과는 [표 17]과 같다.

표 17. 연구모형 가설검증 결과

| 연구 가 설 | 검증 결과 |
|--|-------|
| H1: “창업가 특성(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은 “창업행동”에 정(+) ¹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채택 |
| H2: “창업행동(기회발견, 기회활용)”은 “경영성과”에 정(+) ¹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채택 |
| H3: “인구통계학적 특성(성별, 학력)”에 따라 “창업가 특성”이 “창업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 채택 |
| H4: “인구통계학적 특성(성별, 학력)”에 따라 “창업 행동”이 “경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 채택 |
| H5: “창업행동”은 “창업가 특성”과 “경영성과”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 채택 |

V. 결론 및 제언

최근 창업기업이 국가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등장하면서 국가 경제의 신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 되고 있다. 그러나 창업기업이 지속적으로 생존력을 갖추고, 성장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선행 연구자들이 주장하는 ‘창업가 역량’, ‘차별화 전략’ 등으로는 설명될 수 없으며, 본원적으로 중요한 ‘창업행동(기회발견, 기회활용)’이 본질적으로 중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창업행동을 주요변수로 활용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으며, 창업가 특성이 창업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가 특성’은 ‘창업행동’에 정(+)¹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행동은 창업기회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창업을 실행하는 과정을 이해하는데 창업가 특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며[16], Nielsen(2017)은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사업화에 대해 창업가 특성과 역량이 사업화 사이에 중요한 역할을 제시한 기존의 선행 연구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창업행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창업가의 특성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창업가의 특성 중에서도 진취성, 혁신성, 위험감수성은 창업행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따라서 창업에 있어 첫 단계라 할

수 있는 사업기회 발견, 기회활용을 위해서는 창업가의 진취성, 혁신성, 위험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역량 개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창업행동'은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행동의 '기회발견'과 '기회활용' 모두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부요인별로 살펴보면, 창업행동의 세부요인 중 '기회활용'이 경영성과에 가장 강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이민용(201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민용(2018)은 청년창업가의 역량이 창업행동과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창업행동(기회발견과 기회활용)은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17]. 이와 같이, 기회발견, 기회활용을 통한 창업행동은 창업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이며, 창업기업의 경영성과 창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성별, 학력)"에 따라 "창업가 특성"이 "창업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요인별로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창업가 특성이 창업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창업가 특성이 창업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 분석결과, 김정인·가혜영(2018)은 성별, 학력의 조절효과에 따라 기업가정신이 창업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하였는데, 연구결과, 성별, 학력에 따라 창업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18].

이와 같이, 최근 청년창업사관학교, 1인 창조기업 등 창업관련 정부정책과 지원 사업 등이 활성화됨에 따라, 혁신성, 진취성, 위험 감수성 등을 강조하는 창업강좌가 확대되고 있지만, 여성보다는 남성이 창업특성을 더 높게 인지하고 있어 창업행동에 더 높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많은 연구에서 성취지향 및 목표지향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최근 국내외 명문대 졸업생들의 창업을 통한 성공사례(쿠방, 티켓몬스터, 위메프 등)가 확대됨에 따라, 학력이 높을수록 창업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넷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성별, 학력)"에 따라 "창업행동"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는 것

로 나타났다. 세부요인별로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창업행동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창업행동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 분석결과, 고지혜(2017)는 창업효능감, 창업행동, 경영성과의 관계를 성별, 학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는데, 연구결과, 성별, 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증명[19]하여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창업아이디어 선정의 신중성, 잠재적인 창업 아이디어와 아이템에 대한 고민,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발상, 창업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 대한 발상 그리고 창업기회의 체계적인 탐색이 여성보다는 남성에게서 그리고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입증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다섯째, '창업행동'은 '창업가 특성'과 '경영성과'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검증결과는 창업가가 성공적인 창업을 하고 경영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창업행동을 통해 기회발견과 기회를 활용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창업기업의 경영성과가 극대화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Shane & Zahra(2017)는 창업 기회인식(발견)은 초기인식과 나아가 모험정신에 대한 증진을 의미하는 반면, 기회활용은 새로운 모험정신에 대한 행동의 결정과 이와 관련된 행동을 의미한다고 하였다[20]. 즉, 초기 창업가들은 창업가적인 기회의 발견과 그 기회를 활용하여 창업행동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창업기업과 창업이후 2~7년 된 창업기업 CEO를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창업기업의 특성을 세분화하여, 벤처기업 CEO, 시니어기업 CEO, 청년창업 CEO 등 좀 더 세분화하여 분석했다면 보다 의미 있는 연구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요인들을 선정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연구모형의 설계를 시도하여 분석 하였으나, 최근 창업과 관련된 다양한 변수를 사용하여 실증분석 한다면 더욱 더 의미 있는 분석결과를 도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시사점은 창업가의 특성이 창업행동과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다른 매개변수 즉 창업행동(기회발견, 기회활용)이 창업가 특성과 경영성과의 관계에서 매개 효과가 발생했다는 연구결과는 큰 의미가 있다. 즉, 창업가 특성이 바로 경영성으로 이어지는 것 보다는 기회발견과 기회활용과 연계하여 창업의 경영성과 향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창업가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창업기회를 발견하고 도전적으로 행동한다면 성공 창업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중앙정부나 지자체도 창업정책을 펼칠 때, 창업가에게 창업 기회발견과 창업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면, 창업가가 경영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참 고 문 헌

[1] 중소벤처기업부, 2017년도 창업지원사업 이력·성과조사결과, 2019.

[2] 박상용, “창업자의 역량평가도구 개발 및 타당도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제16권, 제2호, pp.42-58, 2018.

[3] 이상백, “개인특성과 창업의지 사이의 관계,” 중소기업학회, 제1권, 제1호, pp.31-38, 2018.

[4] 강병오, *중소기업 CEO의 창업가정신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17.

[5] Cardon et al., Shan. “Product newness and market advantage,” High technology Market Review, Vol.1, No.2, pp.79-93, 2017.

[6] Baron and Lock, “Challenges to Theory Development in Entrepreneurship Research,” Journal of Management Studies, Vol.30, No.5, 2018.

[7] Cardon et al., Shan, “Product newness and market advantage,” High technology Market Review, Vol.1, No.2, pp.79-93, 2017.

[8] Case, “Entrepreneurial Motivations: What Do We still Need to Know?,”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Vol.49, No.1, pp.9-26, 2017.

[9] 원종하, “소상공인의 창업가특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재무와 회계저널, 제10권, 제1호, pp.16-17, 2016.

[10] 민경세, “소상공인 창업성공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벤처경영연구, 제4권, 제2호, 2017.

[11] 강민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전 직영점 운영활동이 가맹본부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 제11권, 제9호, 2017.

[12] 윤백중, “창업가의 역량특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생산성논집, 제23권, 제4호, pp.52-59, 2016.

[13] 이경우,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성공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인사조직연구, 제9권, 제2호, 2018.

[14] 양준환, “창업 기회원천 분석과 기회탐색의 전략적 의미,” 한국중소기업회지, 제20권, 제1호, pp.28-33, 2018.

[15] 윤방섭, “창업의지의 결정요인: 개인특성 및 환경요인,” 산학경영연구, 제17권, 제2호, pp.19-27, 2018.

[16] Zahra & Nielsen, “Age and Elderly Entrepreneurship,” Working Paper, George Mason University, Fairfax, Virginia, 2017.

[17] Locke and Collins., “Sociology and Entrepreneurship .101-142. Contribution,” Entrepreneurship and Theory Practice, Vol.16, No.2, pp.47-70, 2016.

[18] 김정인, 가혜영, “심리적 독립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 제19권, 제1호, pp.434-438, 2019.

[19] 고지혜, *기업가 정신과 개인적 특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17.

[20] Zahra, “Age and Elderly Entrepreneurship, Working Paper,” George Mason University, Fairfax, Virginia, 2017.

저 자 소 개

유 승 옥(Seung-Ok Yoo)

정희원



- 2013년 3월 ~ 현재 : 광주대학교 기초교양학부 교수
- 2016년 2월 : 중앙대학교 산업창업 경영대학원 창업컨설팅학과

〈관심분야〉 : 창업컨설팅, 취업진로, 창업기업